

국제화 시대의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한일 거절표현의 대조를 중심으로-

최선숙
동아대학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선행연구

이론적배경

제2장 한국어와 일본어의 거절표현

제1절 거절표현의 한일비교

2.1 日本語の場合

2.1.1 曖昧型

2.1.2 延期型

1.1 韓國語の場合

1.1.1 率直型

1.1.2 弁明型

1.1.3 嘘型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1 연구목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한국인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이에 반해, 일본인은 발화시 상대방의 입장에 더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누군가로부터 권유받았을 때, 한국인은 「거절한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확실히 말하면서 이유를 말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이에 반해, 일본인은 거절표현을 하지 않고, 이유만을 말하면서 상대방이 헤아려 주기(察しの文化)를 기대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1.2 연구의 의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받아 거절할 때 사람은 어느 정도 솔직한 또는 원만한 표현을 사용할까? 여기에는 개인차가 있을 테지만, 개인차를 넘어선 무언가가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한국어표현과 일본어표현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서로의 커뮤니케이션 차이를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2절 연구방법

영화나 TV드라마의 시나리오에서 용례를 찾아 한국인과 일본인사이의 거절표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3절 선행연구

柳慧政 (2012) 는 일본어모어화자와 한국인일본어학습자의 의뢰행동을 Politeness의 관점에서 상대방과의 관계에 의해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어모어화자와 한국어 모어화자는 둘 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의해서 의뢰행동을 나누어 사용한다. 그러나, 일본어모어화자는 사회적 상하관계에 의해서, 한국어인 일본어학습자는 연령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任炫樹 (2005)

제2장 한국어와 일본어의 거절표현

2.1 거절표현의 한일비교

거절표현의 한일비교를 함에 있어서 일본인, 일본어의 특징적인 거절표현과 한국인, 한국어의 특징적인 거절표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任炫樹 (2005) 는 거절표현을 아래와 같이 5가지로 나누고, 일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형태로 「曖昧型」과 「延期型」을 들고,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형태로 「率直型」과 「弁明型」과 「嘘型」를 들고 있다.¹⁾

曖昧型：曖昧なことをのらくらと言って、「嫌だ」とは言わない型。

延期型：「考えておきます」などと言って、態度を保留する型。

率直型：率直に、「やりたくない」とか「嫌だ」などと言う型。

弁明型：言い訳を言って、ぼかす型

嘘型：「都合がつかない」などと嘘を言う型。

参考文献

任炫樹 (1999) 「日本語と韓国語の断り表現」 『ことばの科学』 12号 名古屋大学言語文化部言語文化研究会 pp.201-215

任炫樹 (2001) 「日韓の非言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ついて断りを表明する場合を中心に」 『社会言語科学会第8回研究大会予稿集』 社会言語科学会 pp.27-32

1) 任炫樹 (2005) 「日本人と韓国人の言語・非言語行動-断り談話を中心に」 博士学位論文 関西学院大学出版会 P 33

- 任炫樹 (2005) 「日本人と韓國人の言語・非言語行動—斷り談話を中心に— 博士學位論文 關西學院大學出版會
- 熊井浩子 (1992) 「留學生にみられる談話行動上の問題点とその背景」 『日本語學』 第11卷 13号 明治書院 pp. 72-80
- 熊井浩子 (1993) 「外國人の談話行動の分析 (2) —斷り行動を中心に—」 『研究報告人文・社會科學編』 第28卷2号 靜岡大學教養部 p. 1-40.
- 笹川洋子 (1996) 「異文化の視点からみた日本語の曖昧性」 『日本語教育』 89号 日本語教育學會 pp.52-63
- 三宅和子 (1994) 「日本人の言語行動パターン—ウチ・ソト・ヨソ意識—」 『筑波大學留學生センター日本語教育論集』 9号筑波大學留學生センターpp.29-39
- 西田司・グディカンスト, W.B (2002) 『異文化間コミュニケーション入門』 丸善株式會社
- 樋口勝他(1992) 『日本人の人間關係』 淡交社
- 藤森弘子 (1994) 「日本語學習者にみられるプラグマティック・トランスファー: 『斷り』 行爲の場合」 『日本語學・日本語教育論集』 1号 名古屋學院大學留學生別科 pp.1-19
- 藤森弘子 (1995) 「日本語學習者にみられる『弁明』 意味公式の形式と使用—中國人・韓國人學習者の場合—」 『日本語教育』 87号 日本語教育pp.79-90
- 森山卓郎 (1990) 「『斷り』 の方略—對人關係調節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 『月刊言語』 第19卷 8号 大修館書店 pp.59-66
- ラオハブナキット、カノックワン (1997) 「日本語學習者にみられる『斷り』 の表現—日本語母語話者と比べて—」 『世界の日本語教育』 7号 國際交流基金 pp. 97-112.
- 柳慧政 (2012) 『依頼談話の日韓對照研究』 笠間書院